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시황/ESG Analyst 이성훈 shl076@kiwoom.com

키움증권

미 증시, 2분기 GDP 반등, 엔비디아 실적 낙관론에 힘입어 상승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28일(목) 미 증시는 미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 잠정치 상향 조정, 주간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 시장 예상치 하회, 엔비디아의 양호한 실적 발표 이후 하이퍼스케일러를 비롯한 AI 관련주가 양호한 흐름을 보인 결과 3대 지수는 상승 마감(다우 +0.16%, S&P500 +0.32%, 나스닥 +0.53%)

전일 발표된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는 3.3%로 속보치(3.0%) 대비 0.3%p 상승.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소비지출이 속보치(1.4%) → 잠정치(1.6%), 기업 투자도 속보치(1.9%) → 잠정치(5.7%)로 상향 조정된 점이 특징적. 주간 단위로 집계되는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도 금주 22.9만 건으로 전주 수치 대비 5천 건 감소. 한편, 양호한 경기, 고용지표에도 시장 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속됨에 따라 위험자산 랠리는 지속

엔비디아(-0.79%)는 실적 발표 이후 일부 차익실현 매물 출회되며 소폭 하락. 중국향 AI 칩 판매에 대한 불확실성(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중국의 수출 규제, 중국 매출의 15%를 수수로 명목으로 미 행정부에 부과)이 상존하고, 데이터센터 부문 매출(발표 411억 달러 vs 컨센 413억 달러)이 소폭 부진했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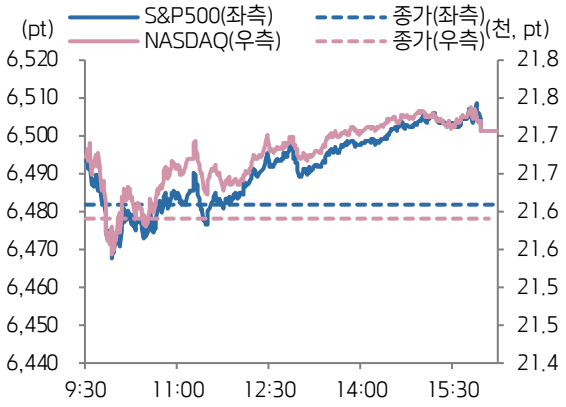
그럼에도 금번 양호했던 엔비디아 실적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샘올트만 발언, MIT 보고서 등)되었던 AI 버블 우려를 불식시키는 요소로 작용. 엔비디아의 젠슨황 CEO는 컨퍼런스콜에서 'AI 인프라 시장은 향후 10년간 3~4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 '차세대 AI 수요 및 추론 컴퓨팅 자릿수가 급증', '엔비디아 신규칩은 물론 구세대 칩까지 수요가 공급을 초과' 등을 발언하며 AI에 대한 막대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음을 강조

이에 따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주요 외국계 IB 증권사들은 대체로 일제히 엔비디아에 대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다는 점도 기술주 투심에 우호적으로 작용. 실제로, 메타(+0.5%), 마이크로소프트(+0.57%), 알파벳(+2.01%), 브로드컴(+2.87%), AMD(+0.87%), 팔란티어(+0.89%) 등 주요 하이퍼스케일러, AI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업이 모두 전반적으로 이 날 양호한 흐름 연출. 잭슨홀 미팅과 더불어 8월 중 가장 중요한 이벤트였던 엔비디아 실적 이벤트도 양호하게 마무리됨에 따라 미 증시의 조정 명분도 일부 해소되는 흐름

전일 국내 증시는 엔비디아 호실적에도 차익실현 경계감 및 외국인 매도세로 약보합권으로 출발했으나, 3차 상법개정안,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 기대감 등이 반영되며 증권, 지주 등 거버넌스수혜 관련 업종으로 매수세가 집중된 결과 코스피는 상승. 다만, 2차전지 밸류체인 관련주가 약세를 보인 결과 코스닥은 하락 마감(코스피 +0.29%, 코스닥 -0.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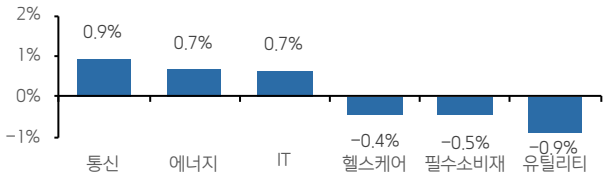
금일 국내 증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미 증시에서의 기술주 반등을 반영하며 AI 관련주를 중심으로 상승 출발할것으로 전망. 한편,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재차 국내 고유의 정책 기대감이 증시에 반영되고 있는 흐름. 특히, 더불어민주당 측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담은 3차 상법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언급. 이에 따라, 증권, 지주 업종은 자사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최근 세제개편안 등 정책 불확실성 여파로 하락했던 낙폭을 단기적으로 회복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기대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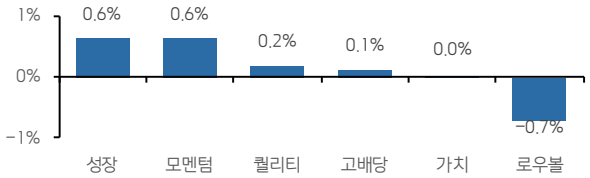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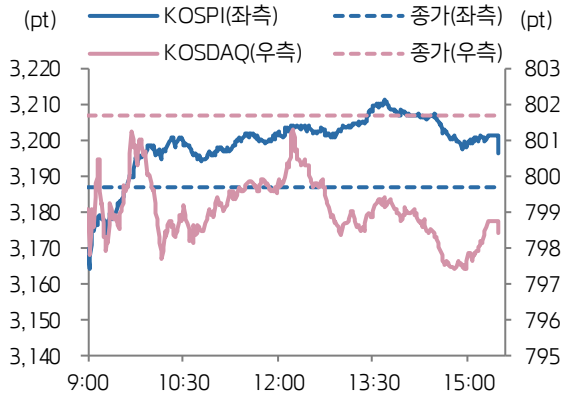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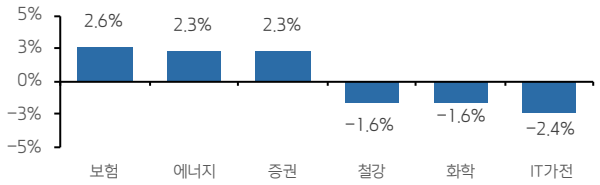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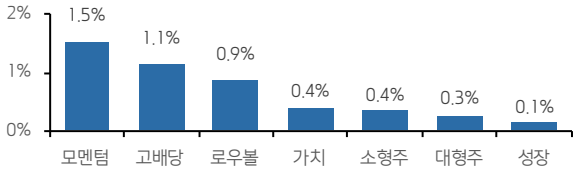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종목

종목	종가	DTD(%)	YTD(%)	종목	종가	DTD(%)	YTD(%)
애플	232.56	+0.9%	-6.8%	GM	58.49	-0.44%	+10.43%
마이크로소프트	509.64	+0.57%	+21.58%	일라이릴리	731.96	-0.3%	-4.62%
알파벳	211.64	+2.01%	+12.07%	월마트	96.11	+0.03%	+7.17%
메타	751.11	+0.5%	+28.5%	JP모건	301.07	+0.6%	+27.64%
아마존	231.60	+1.08%	+5.57%	엑손모빌	113.35	+0.53%	+8.29%
테슬라	345.98	-1.04%	-14.33%	셰브론	159.32	+0.05%	+13.83%
엔비디아	180.17	-0.79%	+34.19%	제너럴일릭트릭	96.11	+0%	+7.2%
브로드컴	308.65	+2.8%	+33.85%	캐터필러	434.91	+0.52%	+21.35%
AMD	168.58	+0.87%	+39.56%	보잉	236.16	+0.23%	+33.42%
마이크론	122.00	+3.61%	+45.29%	넥스트에라	72.09	-1.7%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3,196.32	+0.29%	+33.21%	USD/KRW	1,385.30	-0.64%	-5.91%
코스피200	431.81	+0.35%	+35.87%	달러 지수	97.88	-0.36%	-9.78%
코스닥	798.43	-0.41%	+17.73%	EUR/USD	1.17	+0.38%	+12.84%
코스닥150	1,340.45	-0.93%	+18.64%	USD/CNH	7.12	-0.47%	-2.97%
S&P500	6,501.86	+0.32%	+10.55%	USD/JPY	146.93	-0.33%	-6.53%
NASDAQ	21,705.16	+0.53%	+12.4%	**채권시장**	**가격**	**DTD(bp)**	**YTD(bp)**
다우	45,636.90	+0.16%	+7.27%	국고채 3년	2.415	+1.8bp	-18bp
VIX	14.43	-2.83%	-16.83%	국고채 10년	2.815	-0.7bp	-5.6bp
러셀2000	2,378.41	+0.19%	+6.65%	미국 국채 2년	3.629	+2.1bp	-61.3bp
필라. 반도체	5,853.05	+0.49%	+17.53%	미국 국채 10년	4.203	-3.1bp	-36.6bp
다우 운송	15,902.90	+0.11%	+0.04%	미국 국채 30년	4.876	-4.6bp	+9.4bp
상해종합	3,843.60	+1.14%	+14.67%	독일 국채 10년	2.695	-0.5bp	+32.8bp
항셍 H	8,916.93	-1.15%	+22.32%	**원자재 시장**	**가격**	**DTD(%)**	**YTD(%)**
인도 SENSEX	80,080.57	-0.87%	+2.48%	WTI	64.60	+0.7%	-6.12%
유럽, ETFs	**가격**	**DTD(%)**	**YTD(%)**	브렌트유	68.62	+0.84%	-8.07%
Eurostoxx50	5,396.73	+0.07%	+10.23%	금	3,474.30	+0.75%	+25.57%
MSCI 전세계 지수	956.34	+0.35%	+13.67%	은	39.19	+1.23%	+34.02%
MSCI DM 지수	4,180.83	+0.09%	+12.76%	구리	446.35	+0.98%	+10.85%
MSCI EM 지수	1,269.11	-0.4%	+18%	BDI	2,046.00	+0.24%	+105.22%
MSCI 한국 ETF	73.64	+1.61%	+44.7%	옥수수	410.00	+0.99%	-7.61%
디지털화폐	**가격**	**DTD(%)**	**YTD(%)**	밀	529.00	+0.91%	-11.61%
비트코인	111,924.53	-0.44%	+19.43%	대두	1,048.00	+0.05%	+2.22%
이더리움	4,458.60	-2.99%	+33.23%	커피	377.50	-2.02%	+30.46%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Compliance Notice

-당사는 8월 28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